아일랜드

그 곳은 아일랜드.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모래를 밀어내며 바닥에 결을 만들어내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그려지는 곳.

나는, 그 섬으로 무수한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탐험가이다. 그리고 나는 그 섬의 이름을, '행정복지센터'라고 붙인다.

이제는 조금 지난 이야기겠지만, 난 그 섬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리고 이 길을 17년 째 걸어왔지만, 내 기억과 내 마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던 섬사람들을 추억하며……. 그 섬에서 만났던 이들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다.
남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다는,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말씀이 무의식 속 어떠한 메시지로 작용한 걸까? 그 목소리 따라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당시 '복지'라는 개념조차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미지의 영역으로 내 발을, 겁 없이 성큼 들여 놓았던 것이다.

동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인생을 만났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 이야기를 들어왔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난 상담자, 그들은 내담자의 입장에 서게 되지만, 난 종종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머리 속에는 여러 장르의 영화가 펼쳐진다. 스릴러, 호러, 때로는 로맨스…….시대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부터 6.25, IMF시절까지, 다양하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들의 이야기…….그런데 그것은, 드라마가 아닌 다큐멘터리. 그들의 '삶의 이야기'이다.

한 때는 앙드레 김의 동업자이다가 IMF를 만나 지금 내 앞에 앉아 있기까지의 이야기, 풍족하던 삶…….기대와 배신으로 점철된 세 번의 결혼 이후, 정신병을 얻게 된 아주머니의 막장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이야기, 자해하는 딸과 아들을 지켜보며 손자에게 희망을 얹는 할머니의 고단한 삶……. 희귀병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그들의 이야기. 그 외에도 그들의 수많은 이야기는 파도가 되어 내 마음의 모래사장에 결을 남기고 거품과 함께 물러갔다.

특히 폭력과 학대의 이야기는 내 마음을 먹먹하게 한다. 모래사장에 팍 던져지는 날카로운 돌조각처럼.

결국, 내 앞으로 밀려오기까지 그들의 등을 떠 민 것은, 수많은 상처가 아닐는지…….

그들이 물러간 후, 그들의 온기가 다 식기 전에, 내 망각이 그들의 이야기를 삼켜버리기 전에, 복지전산망에 차곡차곡 입력해 놓는다. 타닥타닥하는 키보드의 타자소리가 마치 모닥불 타는 소리 같다. 난 그들의 삶을 스쳐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은 인연. 내 앞에도, 그리고 내 뒤에도 그들의 삶이 이어지는 한, 여러 점과 같은 만남들이 이어져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선을 긋지 않을까? 생각하며, 전산망에 누군가가 이미 쌓아놓은 그들의 상담내역을 훑어본다. 읽다보니 켜켜이 쌓인 해변 지층을 보는 것만 같다.
'이런 삶을 살았었구나, 그랬었구나.'

여러 번의 발령을 겪어왔기에 가슴에는 굳은살이 생길 만도 하건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서슬 퍼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발령소식이 있었다. 신규 때부터 건너건너 입소문으로만 들어왔던, S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다는 S동으로의 발령소식!
아무리 경험 많은 사회복지직이라고 해도 여전히 두려움으로 마주하게 될 S아파트의 위엄! 우리는 그 곳을 '기피 동'이라고도 불렀다. 기피 동으로 첫 출근하는 아침, 이렇게 생각이 많아보긴 처음이었던 거 같다.

내 첫 날은, 천하를 호령하듯 *"주거복지 담당, 당장 나와~!"* 하는 고함을 치며 등장한 부자(父子)와 함께 화려하게(?) 시작된다. 큰 소리담당 아버지, 맞장구 담당 아들.
"곰팡이가 뭔지 알아?"
"...곰팡이란, 습기와 곰팡이균이 만나..."
상담실이란 우리에 갇혀 포식자 앞에 선 토끼가 된 기분이랄까? 포효하는 아저씨의 침방울이 내 눈에 들어가 찝찝했지만 겁에 질려 닦아낼 용기가 나질 않는다. '다리가 후들거리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다. 겁에 질리니 진짜 내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다!
'상담실에서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지? 상담실 내부에 붙여 놓았다는 비상벨은...어디있더...라? 상담실 안쪽이 아닌 문 쪽에 앉기를 잘했다.'
상담하면서 눈은 포효하는 부자(父子)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이렇게 나의 기피 동 근무생활의 서막이 열리고…….

나는 맞춤형복지팀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1)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그의 강점과 주변자원을 파악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내담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란, 내 삶의 수준이나 반경만큼의 사람들이 아닐까? 하지만, 나는 '행정복지센터'란 이 섬에서, 내 삶의 반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들이 나에게 찾아와 생계나 주거, 의료문제와 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안, 내 머릿속은 공장처럼 바쁘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내가 사는 세계와 같은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견적(?)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일련의 과정들은 마치 빛의 속도처럼 빨라서, 내담자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그의 앞에 내밀 견적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리고 그 답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뿌듯해하며, '유능하다'고 착각해 왔다. '사례관리'라는 바다에 발을 제대로 담그기 전까진…….

S동.
101동에서 108동. 바둑판처럼 많은 창문과 원근감을 느끼게 해주는 긴 복도 우측으로 회색의 철문들이 빼곡히 박힌 곳. 수많은 이야기들이 묻힌 영구임대가 자리 잡은 그 섬을 2년 여 시간동안 배회하면서 나는, 특별한 세계를 잠깐 구경하고 온 탐험가가 되어 그 때의 추억을 되새겨 보려한다.
화려한 서막(?)과 함께 시작된 S행정복지센터섬 탐험…….
난 사례관리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 섬에서 만났던 많은 섬사람들 중 한 '의문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아파트 화장실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다급한 신고.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을 만나면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 의문의 그 남자를 찾기 위해, 그를 신고한 사람부터 S복지관 등 우리는 여러 보이지 않는 끈(?)을 동원해야만 했다. 인천, 부천,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그 남자의 활동

1) 심리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반경은 너무나도 방대한지라, 딱히 어디가 주거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남자를, 고맙게도 복지협의체 위원이 자신의 집으로 전입시켜주고 재워 주기까지 했다. 과거 S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살았었다는 의문의 남자. 그 남자는 이미 그 동네에선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남자였고, 그의 부모의 삶까지도 거슬러 아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는 살고 있었다. 그런 그 남자와 주민 사이에, 이방인은 되레 나였다.

주민등록등본에 선명하게 찍힌 그 남자의 주소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도가 여백에 담겨 있을지 그 남자는 알기나 할까?

많은 이들의 충격과 연민의 대상이었던 그는, 말소자란 딱지를 떼고 전입한 이후로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고 정기적인 생계지원과 LH전세임대를 통한 주거안정도 종합선물세트처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선물'이라는 생각은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그 남자는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질 않는다. 그는 왜, 새 가전제품과 새 이불, 식료품이 비치 돼 있고, 전기와 가스가 나오는 편안하고 안락한 집 대신에, 차디찬 화장실 바닥과 병원의자를 선택하는 것일까? 왜, 그는 새 옷 대신에 의류수거함에서 아무렇게나 집어 든 회색 후드티를 입고 다니는 것일까? 심지어 그는 영구임대아파트 내 S복지관에서 마련해 준 메이커 운동화를 다른 노숙자에게 벗어주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있었다. 그는 마치 우리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살면서 일반적인 상식과 삶을 초월(?)해서 사는 초인(超人)과도 같았다!

초인(超人)같은 그가, 어느 날 자기 발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 주었다. 100킬로그램은 넘어 보이는 거대한 체구, 잿빛의 덥수룩한 머리카락, 오랫동안 물을 멀리하면서 얻게 된 거무죽죽한 피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내부를 가득 채운 존재감 넘치는 그의 체취.

나는 그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했다. 과거 영화 ET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겹쳐지는 듯하다. 손가락을 서로 내밀어 닿을 듯 말 듯, ET와 아이가 인사를 나누는 장면.

"○○씨, 안녕하세요?"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한다. 인사에 답을 하는 예의(?)보다는, 맥락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말한다. 전에 교도소에도 들락날락 했던 거치고는 생각보다 순박한 모습이다. 28살에 다른 사람의 이름표가 붙은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자기 옷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데……. 내 눈앞에 있는 순박하고 덩치 큰 사내와 교도소는 왠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그는 낯선 나에게 생각의 흐름대로 이 말 저 말을 하는 듯 했지만, 그가 이 곳으로 방문한 목적은 분명했다.
'왜 내 생계비 통장을 내가 소유하고 마음대로 쓸 수 없나' 는 불만.

이 남자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버겁고, 특별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지적장애 3급' 이라는 딱지를 붙였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그의 특별한 능력(?)을, '조현병' 이라 불렀다.
그런 그에게, 정부는 생계비 통장을 내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팀은 그에게 후견인을 구해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우르며 바람처럼 살던 그에게, 보호자가 필요하기나 할까?

그런 의문의 그에게 다가가, 종잡을 수 없는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마음의 소리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천사가 생겼다. 자기 집을 자기 집이 아닌 통장님의 집이라고 하고, 자기 집에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그의 알 수 없는 마음을 헤아려 주는 천사. 그가 두려움을 이기고 집으로 들어갈 용기(?)가 생기도록 통닭을 사오는 천사. 같이 라면을 먹어주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무좀연고를 바르게 도와주는 천사. 그 천사는 결국, C가 텔레비전 보고 배불러서 낮잠까지 자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 천사가 사는 곳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S복지관.
나는 사례관리를 한답시고 이 섬에 살짝살짝 드나들기만 한 탐험가였다면, 복지관 천사들은 이 섬의 한가운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그 섬을 수호하며 무수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섬의 수호천사.
그 천사들은 물 없이 스프레이로 뿌리기만 하면 되는 샴푸로 C의 머리를 처음 감겼고, 복지관 2층 화장실을 칸막이로 막고 물 조리개로 따뜻한 물을 받아 샤워를 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날, 복지관 천사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고 들었다.

직업이란 것을 평생 가져보지 못한 37세의 C가 이젠 복지관 천사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아르바이트를 하러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출근을 했다. 그리고 그가 아는 가장 멋진 세계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직원이란 소속감도 느껴본다. 복지관 청소를 하고, 이면지에 도장을 찍는 일은 그가 해 본 일 중, 가장 폼 나는 일이리라.

복지관에서 C에게 금요일마다 주는 주급을 마련하기 위해 뒤에서 동과 복지관이 어떠한 회의를 하고, 어떠한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는 모른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아서 생계비가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것까지도 연습이 필요했고,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출근해서 전담 천사(?)가 챙겨주는 고혈압 약을 먹고, 복지관 일과 함께 '오늘 할 일(집 청소, 집에서 점심 먹기 등)'까지 하면 날마다 5천원의 용돈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예측 가능한 삶'에 그가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하자,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이 보람되고 가치 있게 여겨졌다. 우리는 그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머리를 모았고, 성공은 눈앞에 있는 듯 했다. 심지어 변화된 그의 모습은, 통합사례관리의 성공사례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C가 죽겠다고(또는 죽이겠다고) 차도로 뛰어들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 전에도 복지관 직원과 함께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소리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었는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환각과 환청, 그리고 강제입원 트라우마로 인한 병원치료 거부. 이 뫼비우스의 띠 같던 연결고리는 그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단번에 풀려 버려, 우리가 그토록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도록) 동기부여 해 왔던 시도를, 허무할 정도로 단번에 해결해 주었다.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고 말았다.

알고 보니, 성공적인 일상을 살고 있다고 믿었던 그의 집은, 한 차례 화마(火魔)가 지나간 듯, 창문과 방문, 현관문을 비롯해 닫히는 모든 문은 다 부서진 상태였다. 유리창도 커튼으로 덮어 가장자리에 못을 쳐 버렸다. 오랜 만에 안락함을 주고, 복지관 천사와 함께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았던 추억이 담긴 그 곳을 왜 자신의 손으로 망가뜨려 버린 걸까?
그는 주변에서 정성껏 마련해 준 살림살이도 다 내나 버렸고, 화장실 바닥에 용변도 아무렇게나 보았다. 수리비용만 143만원.

그가 이렇게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결실은 물거품이 되는 듯, 허망함이 밀려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다'* 란 속담이 떠오른다. 복지란 게, 이런 걸까?

성공사례로까지 선정된 건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 나는 마치 거짓말을 하다 걸린 양치기 소년이 된 기분이었다. 조만간 성공사례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실패한 것을 덮고 말해야만 하는 걸까? 복지관 천사들의 인도로 이토록 아름답게 그려진 이 그림이,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하지?

그런 고민을 한창 하던 중, 뜻밖에 발령소식이 들려왔다. 혼란의 끝을 알리는 이 소식은, 희소식일까? 씁쓸하기만 하다.

지금 난, 그 섬에서 떠나온 지 2년이 가까워온다. 그 곳에 새롭게 탐험을 온 탐험가들로부터 내가 만났던 이들에 대한 2부, 3부 소식이 들려온다. 내가 만났던 의문의 그 남자는, 여러 굴곡진 삶의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한 발짝 멀리서 보니 조금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에 가까워 진 것 같다. 고맙게도 그의 곁을 지켰던 복지관천사가 아직도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고, 강제입원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병원 근처에도 안 갔던 그가,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장애재진단도 다시 하고, 조현병 약도 먹기 때문에 환각과 환청으로 인한 불안과 불면증으로부터도 좀 더 자유로워 질 수 있겠지. 누군가에겐 정신병원 입원이 끔찍한 경험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누리게 해 주는 제한된 자유가 될 수도 있겠다 싶다.

병원에 입원한 비슷한 시기에 LH전세임대 2년 계약기간도 만료되긴 했지만, 퇴원하기만 하면 그가 살 집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도록 병원과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S동 맞춤형복지팀,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복지안전망’이 되어 섬을 지키는 등대처럼, 여전히 그에게 믿는 구석(?)이 되어 주고 있다.

삶은, 이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잠깐 그들이 사는 섬을 탐험했던 나는, ‘상식’과 ‘일반’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는 결코 그 섬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내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나는 비로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겠지?

누군가의 처참한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 거리로 삼던 오만함을 내 안에서 느끼고, 누군가의 인생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던 어리석음을 내 안에서 느끼게 된다면, 내가 만날 또 다른 섬에 가서도 조금은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난, 출근을 한다.